

국내 PEF 250개 · '실탄' 44조 ... 해외M&A·자원투자 이끈다

<사모펀드>

국내의 인수·합병(M&A) 등 대체투자에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사모투자펀드(PEF)가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PEF만 벌써 250개에 달하고 이들이 성사시키거나 투자 예정인 자금규모가 44조원에 이른다. 사모투자회사(PE)들은 최근엔 현금을 쌓아두고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국내외 기업 M&A나 해외 자원투자 등에 나서 대체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STX·동양사태에 이어 현대·동부 등 구조조정 매물이 쏟아지자 현금여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PE와 함께 '실탄' 투입을 모색 중이다.

10대그룹 유보율 1500%·잉여금 44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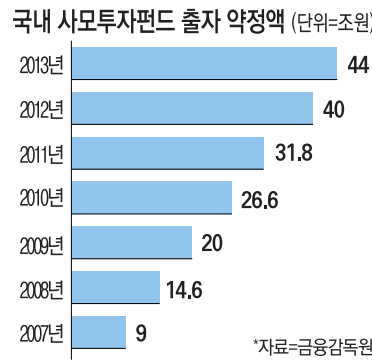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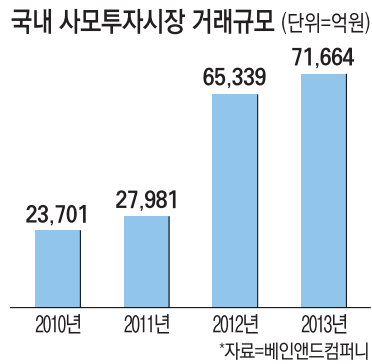
막강한 현금동원력으로 새 투자처 모색

6월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B PE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가 결성한 펀드인 한라SV PEF와 손잡고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에 나선다.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를 위해 KTB PE가 조달하고 있는 자금은 총 3100억원으로 한라SV PEF는 이 가운데 100억~2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인 동양매직 인수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양매직 인수에 나선 현대호소프는 기업은행 PE, 아주IB 등 PE와 손잡았고, 박승업계 쿠쿠홈시스는 KTB PE와 함께 나섰다. 모두 전략적

투자자(SI)인 기업과 재무적투자자(FI)인 PE 간 결합이다. 기업과 PE 간 합종연횡은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신사업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PEF는 기업경영 부담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인수과정에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위험을 줄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실탄(현금)'이 충분한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그룹 70개 상장사 유보율은 1578.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PE시장 뒤흔든 대형 딜

기업	PE 투자자	투자금액
ADT캡스	칼라일	2조665억원
ING생명	MBK	1조8,400억원
웅진코웨이	MBK	1조1,915억원
네파	MBK	9,900억원
SK인천석유화학	신한PE, 스톤브리지	8,000억원
LIG넥스원	스틱 컨소시엄	4,200억원
한진해운 전용선사업부	한앤컴퍼니	4,163억원
동부발전	스틱 컨소시엄	3,284억원
한진해운 부산신항만	IMM	3,000억원
로엔엔터테인먼트	어피너티	2,659억원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수치로 높을수록 기업 '곳간'에 현금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10대그룹 상장사 잉여금은 444조2000억원이나 된다. 이는 지난 3월 말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 424

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10대그룹 상장사가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 보유주식을 모두 사들이고 남을 정도의 규모다.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자 몸을



지난 4월 글로벌 사모펀드의 KKR는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AB인베브에 OB맥주 경영권과 지분을 총 58억달러(약 6조23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OB맥주 청원공장 전경.

사리면서 신성장동력 찾기를 주저하던 대기업들은 넘치는 현금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에 달한 PE 자금을 결합해 새 투자처 모색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해외 투자부문의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PEF가 앞장서서 투자에 나서던 국내 대기업 보유주식을 모두 사들이고 남을 정도의 규모다.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자 몸을

자산 인수를 위해 1조원 규모 PEF를 조성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광물공사 보유 파나마 구리광산 지분 등 자원 분야 매물이 줄지어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결성하는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사모펀드(코퍼펀드)도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다. 코퍼펀드는 국민연금과 해당 기

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PE가 운영을 맡는 PEF다. 최근 결성된 코퍼펀드 규모를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 8000억원(운용사 우리자산운용), CJ(운용사 스타인베스트먼트) 9800억원, 풀무원(운용사 G&A) 4000억원 등이다. 코퍼펀드로 조성된 것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셈이다.

강두순·한우람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GAI 2014' 콘퍼런스 13일 서울 개최

대체투자 글로벌 빅샷 몰려온다



라이더 CIO
렌셀랜드투자공사

GAI 2014

한국보다 앞서서 대체투자를 시작한 호주 국부펀드 퀸즐랜드투자공사(Q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방한해 처음으로 국내 투자자들과 투자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금융 분야 첫 교류 활동이다. 매일경제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CK)와 함께 오는 13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GAI(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Insights) 2014'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QIC와 록히드마틴기업연금 등 해외 기관투자자는 물론 누버거버먼·에버딘자산운용·칼라일그룹·파트너스그룹·맥쿼리그룹·JP모간·약사부동산운용·유니캐피탈 등 글로벌 금융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대체투자 현황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코카콜라 사장 출신인 패트릭 시워드 칼라일그룹 MD도 포럼에 참가해 소비재와 유통 부문에서의 풍부한 바이아웃 경험을 토대로 유망한 사모펀드 투자전략을 조언한다. 운용 규모가 350억유로(약 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펀드오브사모펀드인 알프인베스트 중역도 연거금과 협력 투자모델을 제시한다.

국내에선 국민연금(NPS)·한국투자공사(KIC)·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행정공제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국제금융센터 등 연구계와 사모투자회사(PE) 중역들이 출출동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의 대표 투자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투자시장 흐름을 점검하는 자리다. 총 16개 세션에서 대체투자 경험이 앞선 해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의 예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식 등에 대해 패널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호주 최대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로 750억호주달러(약 72조원)를 운용하는 QIC의 에이드리언 라이더 CIO는 기초연설을 통해 1991년 설립 때부터 부동산 등 실물투자에 나선 경험과 리스크 관리 변화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윤창호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과 추홍식 KIC CIO도 대체투자 현황과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 퇴직연금 2500억달러(약 26조원)를 운용하는 록히드마틴기금운용 아시아 헤드는 사모투자 분야 기관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빅3 생명보험사와 공제회 등 기관들이 미래 투자전략에 대해 패널토론을 벌인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체투자 시장 매력도 집중 논의된다. 존 에하라 일본 유니캐피탈 회장 겸 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장훈 정책금융공사 투자부장 등이 한국의 투자 매력과 아시아 투자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대체투자 주역으로서 PE와 기업의 상생 방안을 토론하는 장도 열린다. 대기업 주도 인수·합병 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SK하이닉스의 박성환 수석IR팀장과 임석정 JP모간 한국대표 등이 기업과 금융자본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진단한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은 시장 가격을 통한 가치평가로 위험 관리가 비교적 쉽지만 대체투자는 가치 산정이 어려워 위험 관리가 난제로 여겨진다. 실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시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에게 정책당국 시각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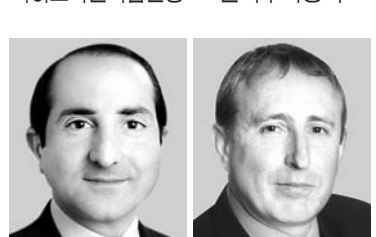
이번 콘퍼런스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맨데이트와이어가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해 행사 관련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GAI 콘퍼런스 등록은 홈페이지(www.gai.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매일경제신문(02-2000-2808)이나 유럽상공회의소(02-6261-2713)로 하면 된다.

서태욱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테니스 제이아 헤드
록히드마틴기금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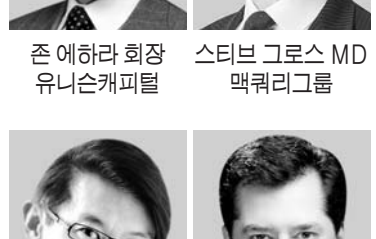
추홍식 CIO
한국투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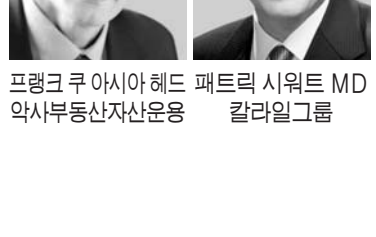
나넬 바라캇 MD
칼라일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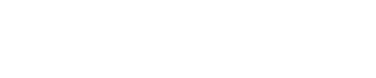
앤드류 매카퍼리 헤드
에버딘자산운용



이안 하스 헤드
누버거버먼



레네 비너 파트너
파트너스그룹



존 에하라 회장
유니캐피탈

스티브 그로스 MD
맥쿼리그룹

프랭크 쿠 아시아 헤드
약사부동산자산운용

패트릭 시워드 MD
칼라일그룹

MONTBLANC

Montblanc Star Classique and Hugh Jackman

Crafted for New Heights

Manufactured in Switzerland, the Star Classique Automatic, with its slim 8.9 mm 18 K red gold case and its ergonomically shaped case back, is a fine companion for an elegant appearance. Visit Montblanc.com